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일석삼조' 효과

빈병·폐비닐 수거…친환경 유기농 실천·생태계 보존

지난해 2306t 모아 4억5000여만원 장려금 지급도

신안군이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기반구축과 갯벌 등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 1석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농폐비닐, 농약플라스틱 빈병과 봉지 등을 전량 수거하면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이를 수거한 농가는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약 플라스틱 빈병 등이 대거 수거되면서 토양의 질도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2306t으로, 영농폐비닐(2289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약 빈병과 봉지가 17t이었다. 군은 이를 수거한 지역민에게 장려금으로 4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영농폐비닐 1만6309t, 농약 빈병과 빈봉지 149t 등 모두 1만6458t을 수거됐으며, 장려금 36억원이 전달됐다.

주민들은 이 장려금을 마을단위 기금으로 쓰면서 경로잔치를 여는 등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거장려금을 지급, 마을단위 수거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수거장려금을 지난해 보다 10~20% 인상할 방침이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이 없는 1등급은 kg당 220원, 2등급은 200원, 3등급은 170원으로 지난 해보다 각각 20원씩 인상한다.

농약 빈병은 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빈봉지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높일 예정이다.

또 올해 6억6500만원을 들여 지역 133곳에 영농폐비닐이 들녘에서 소각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장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모든 마을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옛 목포일본영사관, 근대역사관으로 3월 개관

국가사적 제289호로 지정된 목포 최고의 근대건축물인 옛 목포일본영사관이 목포근대역사관(본관·사진)으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가 옛 목포일본영사관을 목포근대역사관(본관)으로 조성하게 된 배경은 과거 일제 침탈과 억압, 이에 맞서 항거하는 민족정신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19억원을 투입해 원형복원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신청과정을 거치고 본관·방공호·수장고 시설에 대한 전시시설 제작설치 사업에 착수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해경 "무엇이든 잘해요"

올 승진시험 경위급 이상 간부 등 전국 최다 합격

불법조업 中어선 152척 나포 해상치안 활동 완벽

최근 열린 2014년도 해양경찰 승진시험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체 합격자 중 14.2%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던 2014년도 해양경찰청 정기 시험승진에서 총 359명 승진인원 중 51명이 합격했다.

경무 기획계장 최원식 경감 등 2명이 경정으로 진급하는 등 경위급 이상 간부로 14명이 진급했고, 특히 해상안전과 김유수 경장이 동 계급 1위의 성적으로 승진의 영예를 안는 등 경사급 이하에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2014년도 해양경찰청 정기 심사에서는 513함 이영주 경감이 경정으로 해상안전과 이성호 경위, 정보과 문현식 경위가 경감으로 진급하는 등 경위급 이상 간부 9명, 경사 이하 23명이 승진해 총 31명이 영광을 맛봤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5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13억8000만원을 징수해 전국 해양경찰서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도서지역이 산재해 각종 사고 및 응급환자 후송 등 해상 치안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실정이다.

김문홍 서장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하면서 틈틈이 학업에 정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굴축제 관광객 1만2000여명 찾았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신안군 압해읍 복룡선착장에서 열린 '제1회 신안 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산 굴 구이를 맛보고 있다. 신안군은 이틀 동안 전국에서 1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새얼굴

"주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치안' 전력"

안 동 준 목포경찰서장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은 물론, 주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치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1일 취임한 안동준 신임 목포경찰서장은 "600년 항구도시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 남도의 멋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도시 목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서장은 최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치안'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흥 출신으로 지난 1977년 순경으로 입문한 안 서장은 완도경찰서장, 해남경찰서장, 광주청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슬하에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북

순창 청정 삼채 농업법인 설립 생산·판매 전문화

장류 메카 순창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삼채〈사진〉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한 농업회사법인이 순창에 설립된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 삼채 연구회는 삼채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20일 재배농가 5명이 모여 농업회사법인 용담주식회사 발기인 대회를 개최, 박창희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삼채연구회는 지난해 4월 삼채에 관심 있는 100여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삼채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참석자 중 52명이 삼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순창 삼채 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앞으로 농업법인 용담(주)은 자체 개발 중인 고품질 파우치, 환 세트 등을 제조해 자체 판매망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전국적인 판매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BI사업협동조합과 판매 협약을 맺음으로써 홈쇼핑, SNS 등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순창군에는 약 120여 농가가 군의 지원 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삼채를 재배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올해 WHO 고령친화도시 원년의 해"

시, 고령사회정책 본격 추진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체계적인 삶의 질 실현·지역공동체 국가예산 확보 등

정읍시가 2014년을 '세계보건기구(World Hearth Organization, WHO) 고령친화도시(AFC)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하고 시설 개선과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올해 기반조성사업으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령친화도 조사 및 가이드라인 설정, 핵심전략 및 실행방안을 개발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의 조성 목적은 첫째 WHO의 표준모델을 활용해 체계적인 삶의 질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 모든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둘째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 셋째 국제회원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관계 증진 및 세계 최고 건강도시로서의 부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생애주기 관점에서 0세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적인 삶(사회참여)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모든 연령·계층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읍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시장과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고령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최근 중앙부처와 정책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와 요양보험제도과를 방문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전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눈덮인 전주 한옥촌

전북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1일 전주 한옥마을에 눈이 쌓여 고즈넉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단신

고창군, 귀농인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농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인 및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총사업비 6억2500만원을 투입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경운기, 복분자가지파쇄기 등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는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선도농, 귀농귀촌인, 후계농, 은퇴농 등)을 우선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올해 친환경농업 55억 투입

순창군이 올해 친환경농업에만 55억원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를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벼재배 시범단지를 육성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19ha에서 280ha로 늘어나 전년 대비 13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도 친환경벼 재배단지 육성 등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벼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벼재배단지 육성사업의 경우 오는 24일 단지대표농가, 농협, 법인 등 유통 관계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보건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틀니 시술

전주시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구강검진상 의치(틀니)장착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의치(틀니)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구강상태를 검진해 틀니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시술대상자로 선정, 전주시 치과의사회에서 배정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23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줄 방침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조류인플루엔자 탓농업인 교육 등 연기

정읍시가 지난 20일 조류인플렌자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도로 및 시 경계지역에 6개 거점소독시설 운영키로 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연초 계획한 행사도 잇따라 연기했다.

시는 먼저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23개 읍·면·동 순회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를 설명절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 14일부터 시작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도 무기한 연기했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29개 읍면동 및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27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